

“천성산 계곡 이렇게 예뻐요” 산길 걸으며 봄내음에 ‘흠뻑’

‘알레지 꽃길 지나 암자만나기’ 산행



◊알레지 꽃길 지나 암자만나기 행사 참가자들이 천성산계곡의 바위틈 웅덩이에서 도롱뇽 알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사진=박원규 기자



◊지울스님이 3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천성산에 올랐다.
 “인간이 돌아갈 곳은 결국 자연입니다. 천성산의 봄꽃과 맑은 공기를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4월 6일, 지울스님은 38일간의 단식을 하면서 그동안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천성산에 올랐다.
 하루에도 서너번씩 홀로 오르내리던 산길을 38일 동안 마음을 함께 했던 이들, 그리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가족단위의 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했다.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뭇가지 끝의 새순들과 여기저기 숨은 듯 피어난 작은 풀꽃들, 곤락을 이룬 얼레지와 현호색을 만나며 금정산 천성산 순례에 동참했던 분도수녀회 수녀님들과 생후 6개월의 아이까지 초록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 들었다.

38일간 단식 회향 지울스님이 안내 들꽃에 눈맞춤, ‘천성산 지키기’ 육행시 짓기 “자연사랑·범회 어우러진 멋진 행사”

‘알레지 꽃길 지나 암자만나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산행은 지울스님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초록의 공명’이라는 환경모임에서 준비했다.
 지울스님이 안내를 맡은 산행은 내원사 주자장을 출발, 노전암을 지나 계곡을 따라 걸으며 얼레지, 현호색, 제비꽃, 진달래 등 여기 저기 피어난 봄꽃을 마주하며 조계암으로 오르는 5km 정도의 코스로 진행됐다. 가족단위로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준비해온 야생화 도감을 뒤적이며 들꽃의 이름을 익히기도 하고, 지울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풀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곤락을 이룬 얼레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 배웠어요”

참가자 김수길씨 가족

“도롱뇽 알을 본 건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얼레지, 현호색도 참 예뻐요. 자주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동생 원경(5살)이와 엄마(박복희), 아버지(김수길)와 참석한 초등학생 기영(김창초 5)이는 ‘봄에 피는 야생화’라는 들꽃 책자 속에서 얼레지를 펼쳐 보았다.
 옆에 있던 동생 원경이도 “참새, 진달래, 개나리를 봤다”며 하루종일 본 것들을 가만히 떠올리며 다시 오고 싶다는 엄마의 물음에 선선히 “또 올거야.” 하고 답한다.
 “아이들과 함께 오니까 아이들이 꽃을 보고, 나무를 만져보면서 생태나 환경의 소중함을 스스로 배울 수 있어 참 좋았어요. 스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매월 첫째주는 지울스님과 함께 하는 산행을 위해 비워둘 겁니다.”
 “아이들이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친구들에게 전하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것 같다”는 김수길씨의 말은 지울스님의 말이자 ‘초록의 공명’이 하고픈 말이었다.

산을 오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멈췄다. 곧이어 아이들의 감탄이 터져 나왔다.

“도롱뇽 알이다! 개구리알도 있다!” 한줌의 물만 겨우 남은 바위틈 웅덩이에 개구리와 도롱뇽의 알이 함께 있었다. 빗물이 고인 곳에 개구리와 도롱뇽이 알을 낳은 모양인데 고인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그대로 두면 죽고 말지도 모른다는 지울스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참가자들은 계곡으로 알을 옮기기 시작했다. 두 손으로 알을 감싸진 사람들의 표정엔, 생명을 살리겠다는 긴장과 경이로움이 넘쳐났다.

“고속철이 우리 계곡을 관통하게 되면 이런 생물들이 겨울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결국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다른 생물들까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빠져 있어요.”

너무 쉽사리 파괴될 환경과 생명의 문제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은 순간이었다. 손안에서 느껴지던 그 수많은 생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마음 속에 차오른다. 이번 산행이 아니었다면 막연한 관념에 그쳤을지도 모를, 생명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한숨을 고르고 다시 산길을 오르니 지대가 높아질수록 얼레지가 곱다. 점점이 흩어져 곤락을 이룬 현호색과 연분홍 진달래빛에 감탄이 절로 난다. 별꽃도 앙증맞게 빛을 발한다. 양지꽃의 작디작은 꽃망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햇빛 닮아 환해진다.

“꽃은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 주지 않아요. 들꽃을 감상해 보고 싶다면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그냥 지나치면 볼 수가 없습디다”

봄꽃에 취해 걷다보니 어느새 조계암, 암자에서 정성껏 준비한 비빔밥으로 허기를 달래고 나니 함께한 모두가 시인이 된다. ‘천성산 지키기’라는 육행시 짓기에서는 천성산의 아름다움과 고속철 관통을 반대하는 시가 쏟아져 나오면서 천성산의 풀꽃들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됐다.

TV에서 단식하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산행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장려옥(60, 범명 상라화)보살은 “직접 와 보니 천성산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 것을 알겠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겠죠”라고 말한다.

또 다른 참가자 이기진(48, 고리 원자력발전소)씨는 “스님과 함께 한 이번 산행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라 자연사랑과 범회를 한데 어우러진 멋진 시간이었습니다”며 “앞으로 직장 동료나 함께 활동하는 불자들에게 알려서 함께 할 겁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지울스님은 행사를 마치면서 “생명 파괴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초록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천성산 문제를 비롯한 모든 환경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초록이 되고 공명의 첫 울림이 되자고 당부했다.

“한쪽의 소리굽쇠를 치면 다른 쪽의 소리굽쇠까지 같이 울리는걸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울림이 전해져 마침내 생명과 환경 사랑의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초록이 되고, 울림이 되려고 합니다.”

‘초록의 공명’은 이번 산행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주 일요일마다 산행을 정례화한다. 또한 셋째주 일요일에는 천성산의 이모저모와 생태적 가치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살피는 전문가를 위한 산행도 준비중이다.

1200종이 넘는 들꽃이 지천으로 피어나는 천성산, 5월이면 피나물 곤락과 은방울꽃 곤락이 장관을 이룬다. 5월 산행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천성산=천미희기자 mhicheon@buddhapia.com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나...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증급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테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국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